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신대원 3학년 구빈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학교에서 보낸 시간이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경험과 감상, 깨달음과 성장의 모습은 다를 것이다. 유니언 신학교에서 보낸 시간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공유함에 있어서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한 끝에 나는 이미 교환학생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최대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참고할 만한 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학교: Union Presbyterian Seminary

미국 동부의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에 위치한 학교로 학부과정이 없고 박사과정이 최근 폐지되어 M.Div, Th.M, MACE 등 석사과정 위주로 이루어진 학교이다. 전교생이 100명 안쪽이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제외하고



캠퍼스에서 매일 얼굴을 보는 학생들은 50-6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 모두가 소규모 공동체의 분위기에서 살아간다. 실제로 미국내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온 미국 친구들도 살면서 이렇게 가족적인 집단에 소속되어 보는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이는 교환학생으로서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2. 캠퍼스 생활: 주거와 식사

유니언 신학교에는 캠퍼스 안팎에 기숙사가 있고 가정이 있어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싱글이나 젊은 부부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한다. 나 또한 교환학생으로 학교 캠퍼스 내의 싱글 학생을 위한 기숙사에서 생활 하였다. 욕실이 있는 1인 1실이 주어지고 필요한 대부분의 것이 갖추어져 있는 주방은 공용으로 사용한다. 교환학생 선발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학교측에서 기숙사 배정과 관련하여 하우스 담당자로부터 메일이 오니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문의해도 좋다.

식사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매달 식대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수표로 주는데, 아침과 점심이 제공되는 카페테리아에서 사서 먹거나 기숙사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친구들과 학교 근처 식당에 가서 먹는 방법 등이 있다. 교환학생에게 부족하지 않은 금액의 식대를 제공하는 것이 유니언 신학교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 3. 캠퍼스 생활: 수강신청 및 수업

교환학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미국 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통해 신앙과 신학의 다양성을 몸소 체험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 유니언 신학교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설된 과목의 수는 많지 않지만 미국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사회 참여를 고민하는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신학 뿐 아니라 미국의 문화와 교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중 교환학생은 선택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것이 유익한 것 같다. 일단 필수과목에 비해 수강생 수가 적기 때문에 5-8명 남짓한 규모로 교수님 뿐 아니라 학생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기에 좋고, 사회문화적 이슈나 미국교회의 사역 및 행정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과목들이 많기에 사회문제에 대한 미국교회의 입장과 생각을 배우고 미국교회 목회 현장의 노하우들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제의 양도 대체로 필수과목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영문 텍스트를 읽고 쓰는 속도가 느린 경우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해 덜 부담스러운 과목을 듣는 것이 오히려 공부의 질과 만족도를 보장 받는 길일 것이다.

#### **4. 교회 생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에 추구하는 바에 따라 한 교회에 정착할 수도 있고 여러 교회를 탐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애초에 교환학생을 통해 얻고자 했던 가치 중 하나가 신앙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나의 세계를 넓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환학생 동기인 프랑스 친구와 함께 교회 탐방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거의 매주 다른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루터교 등 다양한 교파와 교단의 교회는 물론이고 백인 중심의 교회, 흑인 중심의 교회, LGBTQ 교회 등 최대한 여러 곳을 가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확장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

#### **5. 문화 체험 및 여행**

유니언 신학교는 가을학기, 봄학기, 4 월학기, 5 월학기로 구분되는 특이한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기 중에는 과제로 인해 매우 바쁜 생활을 해야 하지만 틈틈이 방학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주일짜리 방학이 굉장히 자주 있는데, 교환학생은 이 기간을 활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문화 체험을 하면 좋다. 나는 방학을 이용하여 틈틈이 코네티컷, 뉴욕, 워싱턴 DC, 찰스턴, 올랜도, 마이애미 등을 여행하였는데, 그때마다 이 학교가 위치한 리치몬드시가 동부 해안 도시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다. 학교 내 학생과 교수님의 많은 수가 근처 도시들 출신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쉽다.

#### **6. 교통수단**

다른 목적이 아닌 단순히 장을 보는 등의 문제로 차량 구입을 고민한다면 굳이 그

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다. 미국 학생들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왔을 시 차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는데, 주변에서 기꺼이 도와주려 하고 놀러갈 때도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카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리치몬드시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차로 10 분 거리에 위치한 다운타운 정도를 가야할 경우 우버 택시를 이용하면 편하다.

## 7. 기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지니아주립미술관(VMFA)이 있다. 상설전이나 기획전 뿐 아니라 재즈 음악회 등 매주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는 곳이어서 유니언 신학교의 학생들도 종종 찾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봄학기과 가을 학기에 글쓰기, 페이팅, 드로잉 등 다양한 정규 강좌가 개설되는데, 좋은 선생님들의 알찬 수업이 진행된다. 나는 이곳에서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드로잉 클래스를 등록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그림을 그리러 다녔는데,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 뿐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직장인, 시인, 의사, 주부 등 신학생이 아닌 일반 미국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15 분 정도 떨어진 곳에는 리치몬드에서 가장 큰 학교인 VCU 라는 2 만명 규모의 종합대학이 있는데, 이 학교의 도서관도 이용하면 좋다. 유니언 신학교와 결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쳐 책도 대출할 수 있다. 나는 책을 빌리지 않아도 3 층 규모의 첨단 열람실과 1 층에 있는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목적만으로도 자주 들렀던 곳이다. 특히 유니언신학교의 도서관은 요일에 따라 밤 10 시나 오후 6 시에 닫지만, VCU 의 도서관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24 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긴 시간 이용하기 좋다.

## 8. 귀국 후

귀국 시기를 막론하고 귀국 후에는 대외협력실에 전화를 하여 귀국을 알리고 15 일 이내로 수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학점인정이 되지 않고 1 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에 용기가 나지 않아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반신반의하며 토플을 보고도 확신이 서지 않아 마지막 날 겨우 신청서를 제출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부질없는 고민이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생활의 모든 부분을 안전하게 보호 받는 외국 생활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교환학생은 장신대를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 해야 할 수 없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양쪽 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 오셨고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것 같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포함한 학생들이 매년 많은 배움을 얻고 돌아오니 그 노력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